

# 청년층의 경제적 합리성으로 본 희망자녀수와 출산시기 : '저출산트랩' 가설을 중심으로

## Testing the Economic Rationality Hypothesis of the Low Fertility Trap Among Korean Youths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 수 유 계 숙\*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  
Professor : Yoo, Gye-Sook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economic rationality hypothesis of the low fertility trap among 412 college students at 13 private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The respondents were requested to complete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nd th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for analyzing the data.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ents' views on the prospects for their future employability were 54.6% for big business, 64.51% for medium-sized business, and 49.63% for public sector. In the most employable job, the mean desired monthly salary was 3,505,400 won, while the mean expected monthly salary 2,753,600 won. Seco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the family income in parental home was positively related to youths' consumption aspirations. Finally, the gap between youths' consumption aspirations and their expected income was negatively related to their desired number of children, whil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planned age of first child birth. Thus, the low fertility trap hypothesis was supported in terms of birth rate drop, but not supported in terms of childbearing postponement.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results are discussed.

▲주요어(Key Words) : 저출산트랩 (low fertility trap), 청년취업 (youth employment), 저출산 (low fertility)

### I. 서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기회가 감소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복지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최초로 대체출산율(2.1명)이하로 떨어진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2년 1.17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였고, 2005년 합계출산율 1.0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며 초저출산

상태가 지속되다가 2012년 합계출산율 1.30명으로 11년 만에 가까스로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향후 출산율이 소폭 상승한다 해도 우리나라의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에서 정점을 찍고 감소하며, 2060년의 합계출산율은 1.42명에 그치게 된다고 전망한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인구 감소 속도를 좀 더 늦추고 급속한 고령화의 부담을 완화하려면 향후 합계출산율의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제활동과 가족 형성 및 자녀출산을 촉진함으로써 고령화의 충격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높은 청년실업률과 함께 등록금

\* 주저자·교신저자 : 유계숙 (E-mail : dongrazi@khu.ac.kr)

대출, 장기간의 취업 준비, 불안정한 일자리, 치솟는 집값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갱거루족'이나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의 등장을 고려할 때, 이들의 장래 소득이 기대하는 소비수준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 가족을 형성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요원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저출산트랩(low fertility trap)'에 갇히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에코부머세대인 청년층 대학생들은 베이비부머세대인 그들의 부모에 비하여 성장과정에서의 소비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즉 에코세대는 그들의 부모인 베이비부머세대의 개발성장기 소득 증가에 힘입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하여 대학진학비용이 베이비부머세대보다 2.4배 높고, 조기유학 및 어학연수 등을 통하여 글로벌 마인드를 지니고 있다(한국경제, 2012. 6. 26). 이처럼 부모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층의 소비수준은 취업, 결혼, 출산 등이 부모로부터 독립한 이후 기대하는 삶에서도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청년취업난과 장기적 경기침체를 고려할 때, 향후 이들이 기대하는 소득을 얻고, 원하는 소비수준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트랩'가설은 이처럼 청년층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게 되고, 결국 더 적은 수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자녀를 출산하는 시기를 지연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설명한다. 즉 현재의 청년층이 이상적으로 기대하는 자녀수가 많더라도 경제적 제약에 의하여 많은 자녀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코호트 출산율의 감소를 초래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출산시기를 지연하게 된다는 것이다(Eom, 2009). 본 연구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청년층의 경제적 합리성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여 '저출산트랩'가설(Lutz, Skirbekk, & Testa, 2006)을 검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청년층 대학생의 취업가능성과 임금 전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원가족의 자녀수와 소득수준은 청년층 대학생의 기대소비수준(취업가능성 가장 높은 일 자리에서의 희망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3>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저출산트랩은 출산율을 저하시킬 것이다. 원가족의 소자녀수와 고소득수준 및 청년층 대학생의 기대소비-기대소득 격차(취업가능성 가장 높은 일 자리에서의 희망임금과 예상임금 간 격차)는 향후 희망자녀수를 감소시킬 것이다.

<연구가설 4>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저출산트랩은 첫

자녀 출산을 지연시킬 것이다. 원가족의 소자녀수와 고소득수준 및 청년층 대학생의 기대소비-기대소득 격차는 향후 계획하는 첫 자녀 출산연령을 지연시킬 것이다.

## II. 문헌고찰

### 1. 청년층의 취업 및 임금전망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교육을 노동력의 사용가치와 교환 가치를 키우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교육기간은 경제적으로 연장되어왔다. 이 결과 대학진학율이 70%를 상회하며(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2012), 대학졸업 이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실업상태이거나 여전히 취업을 위한 준비와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청년층 취업 실태이다(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8).

또한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크고 기업 간 전직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노동시장 진입 시점부터 청년층의 대기업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청년층의 대기업 쏠림현상은 강화되고, 특히 쉼없는 일 자리에서 대졸자들의 구직난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Hyundai Research Institute, 2011).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급등했다가 다소 진정되었지만, 현재도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5~29세 평균 실업률은 1990~97년 평균 5.5%에서 2000년대 평균 7.3%로 높아졌다. 이러한 청년 실업률 수치 자체는 주요 선진국들보다 낮은 편이나, 실상은 우리나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우 저조한데 기인한 것이다. 즉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층이 실업자가 되기보다 졸업을 유예하거나 추가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근로의지를 상실한 니트족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청년기에 실업을 경험하는 것은 향후 취업이 되더라도 평균 임금을 낮추는 낙인효과를 발생시킨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통계를 이용하여 2008년 대졸자의 취업과 임금경로를 분석한 결과, 졸업 후 2008년까지 실업상태였던 청년층은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층에 비해 2010년의 임금이 약 20% 가량 낮아져 월평균 43만원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근태·고가영, 2012).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청년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 청년층의 임금 수준이 하락세를 지속하여 이들의 상대적 임금이 하락하고

있다. 매년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환산하여 청년층의 상대적 임금을 산출한 결과, 2007년 청년층의 임금은 78.2였으나 하락세를 지속하여 2011년에는 74.3으로 낮아졌다. 또한 2009년 이후 청년층의 실질임금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실질임금 하락폭이 전체 임금근로자보다 크게 나타났다(Hyundai Research Institute, 2011).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대학의 취업준비생 743명과 기업 인사담당자 3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이 받고 싶다고 답한 평균연봉과 실제 기업이 지급하는 초임 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4년제 대학 재학생들이 받고 싶다는 초봉은 평균 연 3,329만 원이었지만 실제 기업에서 4년제 대학 졸업생에게 지급하는 액수는 평균 3,043만 원으로 286만 원 차이가 났다. 특히 서울 소재 주요 4년제 대학 재학생들은 기대임금을 평균 3,633만 원으로 대답해 실제 초임과 격차가 590만 원에 이르렀다(동아일보, 2012. 5. 8).

서울, 경기지역의 대학생 239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취업전망과 영역별 삶의 목표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1.8%에 해당되는 학생들만이 긍정적인 취업전망을 나타냈고, 74.9%가 비교적 또는 매우 부정적인 취업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우리 사회의 대학생들이 전망하는 취업가능성이 상당히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매우 부정적인 취업전망을 하는 대학생들은 삶의 목표의 중요도 평가에서 개인·경제적 목표를 가장 중시하였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취업전망을 하는 대학생들은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의 욕구가 큰 반면, 그러한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결핍(현실관)과 무력감(자기효능감)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 사회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비로소 성인기로 진입하여 독립적인 삶을 시작해야할 시점에서 부정적인 취업전망과 왜곡된 삶의 목표를 형성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현실에서 주목하고 우려해야할 필요성이 있다(Oh, 2008).

## 2. 청년층의 경제적 합리성과 자녀출산

경제학적 관점에서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한 이론으로 널리 알려진 모델 중 하나가 Easterlin(1987)의 '상대소득'가설이다. '상대소득(relative income)'이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상대적 소득에 기초하여 청년층 자녀세대가 희망하는 생활수준에 비례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젊은 세대의 소비수준(물질적 욕망)을 나타낸다. 이 가설은 특정 세대의 출생 코호트(birth cohorts)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고교나 대학을 갓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에 초점을 둔다. 많은 연구결과들에서 상대적 출생 코호트의 크기가 부모세대의 소득 대비 자녀세대의 상대적 소득비

율을 변화시키는 주요인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효과는 노동시장에서 나이트 숙련된 근로자를 미숙련 청년층 근로자로 완전대체하지 못하며, '생산성'이 양측의 균형에 민감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노동인력이 과잉공급된 연령층에서는 실업률이나 파트타임고용률이 증가하고, 자신의 취업가능성을 낮게 전망하는 사회초년병들은 구직초기부터 취업전선에 뛰어들지 않음으로써 실업률을 낮추는 소위 '실망노동자 효과(discouraged worker effect)'를 통하여 과잉공급된 집단의 노동시장참여율이 감소된다(Macunovich, 2002).

한편 개인이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자신이 희망하거나 원하는 생활수준에 비례하는 1인당 가처분소득(per capita disposable income)이다. 각 개인은 자신이 어느 정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본인의 수입능력을 노동시장에서 결정된 수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러한 소득수준에 근거하여 자신이 부양할 가족의 크기(예: 독신, 부부, 부부와 자녀 등)를 결정한다. 따라서 1인당 가처분소득이란 이와 같이 결혼이나 출산 등 개인이 인구학적 의사결정을 내린 후 자신과 부양가족이 자유롭게 소비와 저축을 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상대소득'가설에서 개인은 1인당 가처분소득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소비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정을 시도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출생 코호트의 성원들은 자신의 소득과 소비수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결혼 지연이나 포기 등 여러 가지 조정을 하게 되고, 보다 적은 수의 가족원을 부양하고자 소자녀를 선택할 것이다. 이처럼 Easterlin(1987)은 노동시장 진입, 가족 형성, 결혼, 출산 등에 관한 청년층의 선호가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즉 젊은 세대가 자신의 소득능력으로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준거를 적용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을 바라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형제, 또래친구 및 직장동료, 거주지역, 사회경제적 준거집단 등 많은 요인들이 청년기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 가장 명백하고, 중요하며, 정량화가 용이한 요인은 원가족에서 경험한 생활수준이다.

Easterlin(1987)은 경제발전과정에서 세대를 거쳐 감에 따라 부모의 생활수준이 연속적으로 향상됨으로써 청년층의 생활수준 선호에 체계적 변화가 초래된다고 가정하였다. 예컨대 2010년대에 연간소득 2만 달러로 연상되는 개인의 생활수준은 1980년대의 그것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는 개인이 기대하는 생활수준이 두 시대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전후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최저 생활수준의 압박과 경제적·인구학적 변동으로 인하여 출산력의 장기적인 하향추세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다(Macunovich, 2002). Easterlin(1987)은 대공황과 세계대전 시기에 출생하여 성장한 1950년대의 미국 청년층이 전후 풍요로웠던 6,70년대에 성장

한 청년층에 비하여 자신의 소비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처럼 청년층의 소비와 생활수준 선호가 변화한데다 1950년대의 청년층은 노동시장에서 여타 출생 코호트에 비해 그 크기가 매우 작은 출생 코호트(1930년대 출생률 급락이 낳은 산물)여서 부모 세대의 나이든 근로자에 비해 그들의 임금이 상승하였다. 이러한 복합적 효과에 의하여 1950년대의 미국 청년층은 이미 낮게 형성된 그들의 소비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에 힘입어 자녀출산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1950년대 미국에서는 젊은 커플들이 대거 결혼을 하고 가족을 형성함으로써 전후 베이비붐을 몰고 왔다. '상대소득'가설에 따르면, 전후 베이비부머들이 20년 뒤 노동시장에 쇄도하면서 이들의 임금이 부모세대의 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그들이 기대하는 생활수준에 비해 획득한 임금은 낮기 때문에 출생률 급락현상이 발생했다고 본다.

'상대소득'가설은 베이비붐과 출생률 급락현상 이외에 청년층의 혼전출산 문제를 조명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는 세대가 결혼을 지연하거나 포기하면 젊은 여성들의 혼전임신 가능성은 보다 높아진다. 이러한 요인은 역시 상대소득에 기인한 기혼부부의 출산 지연 및 감소와 함께 전체 출산에서 혼외출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Easterlin(1987)의 '상대소득'가설은 미국의 혼외출산율이 1970년대 이후 급증하다 1990년대 들어 현저하게 감소한 배경을 잘 설명해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나타난 미국의 출산력은 그의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는데, 가설 기각의 한 원인으로 여성해방과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인한 여성의 임금효과가 Easterlin 효과를 은폐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Macunovich, 2002). 특히 '상대소득'가설을 거시 혹은 미시 분석을 통하여 검증한 국외연구들 중 Easterlin 효과를 지지하지 않은 연구들(Westoff & Ryder, 1977; MacDonald & Rindfuss, 1978; Thornton, 1979)은 상대소득을 연속형 변인으로 측정하지 않고 '상대적 부유함에 대한 주관적 느낌' 등 범주형 변인으로 측정하는 등의 방법론상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Macunovich, 1998). 또한 Easterlin 효과를 검증한 국내연구들(Ryu, 2007; Eom, 2009)은 남성의 소득을 가족의 소득 측정을 위한 대리변수로 혼용한 제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3. '저출산트랩'가설

Lutz와 동료들(2006)은 유럽과 일본, 한국에서 출산율 저하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초저출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저출산트랩(low fertility trap, 또는 저출산함정, 저출산의

덫)'의 개념을 제시하고, 인구역동적·사회적·경제적 세 가지 측면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상호영향을 미치며 작용하는 경로들로 구성된 '저출산트랩'가설을 제안하였다(Lutz, Skirbekk, & Testa, 2006). 이러한 '저출산트랩'가설을 요약하면, 특정 사회의 가임여성과 출생아 수가 줄고(인구학적 측면), 결혼한 부부가 원하는 자녀수가 감소하며(사회적 측면), 장래 기대소득이 청년층의 소비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면(경제적 측면), 그 사회는 '저출산트랩'에 빠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구역동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저출산트랩에 빠지게 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구역동적 수준에서 작용하는 저출산트랩을 설명한 '고령화'가설은 인구성장의 부적 모멘텀, 즉 출생아수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구조(고령화)의 영향을 의미한다. 출생아수는 기간 출산율(특정연도의 15~49세 가임여성의 평균출생아수)의 연령패턴과 인구의 연령구조(고령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기간 출산율은 코호트 출산율과 출산시기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고, 이 두 요인은 각자 다른 결정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코호트 출산율의 수준은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이상적 자녀수에 관한 규범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구 모멘텀(population momentum)이 인구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반면, 장기간의 초저출산현상이 나타난 이후에는 인구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심지어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으로 오르더라도 가임연령대의 여성 수가 점점 감소하게 되면 출생아수는 감소할 것이다. 최근 EU의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부적 모멘텀에 진입하였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 현상이 훨씬 더 진행된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은 다시 출생아수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됨으로써 하향적 악순환을 초래하는 저출산트랩으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규범의 수준에서 작용하는 저출산트랩을 설명한 '이상적 자녀수'가설은 코호트 출산율의 결정요인 중 하나로 간주되는 이상적 자녀수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이상적 자녀수의 감소가 그 이전에 먼저 진행된 실제 자녀수의 감소에 의하여 유발된다는 가설에 기초한다. 개인의 이상적 자녀수는 실제 출산한 자녀수보다 큰 경향이 있다. 1970년대에 합계출산율 1.5 이하의 초저출산현상을 가장 먼저 경험한 독일어권 국가에서는 현재 청년층 코호트의 이상적 자녀수가 인구대체수준을 밑돌고 있는 현상을 역시 가장 먼저 경험하고 있다. 사회적 규범의 수준에서 작용하는 저출산트랩은 가치규범, 특히 청년층의 이상적 자녀수에 관한 가치관이 사회화과정이나 사회학습을 통하여 그들이 주변에서 경험한 현상의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즉 청년층이 소자녀나 무자녀가 보편적인 환경을 접하게 된다면, 미래의 자녀는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청년층의 삶의 이미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관심 주제인 경제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저출산트랩을 설명한 '상대소득'가설은 원가족의 소득수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개인의 소비수준과 노동시장에 의하여 형성되는 청년층의 기대소득 간 관계에 의하여 출산율이 결정된다는 Easterlin(1987)의 '상대소득'가설에 기초한다. 즉 청년층의 기대소비수준이 장래 예상되는 소득수준보다 높으면 저출산 현상이 초래되며, 역관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Lutz, Skirbekk, & Testa, 2006; Lutz, 2007). 오늘날의 청년들은 지난 수십 년간 그들의 부모세대가 경제호황의 수혜를 입은 덕분에 성장과정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물질적 소비욕구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Stutzer, 2004). 또한 출산율의 감소로 인하여 오늘날의 청년들은 그들의 원가족에서 부모의 부를 과거보다 적은 수의 형제와 나누면서 소비성향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Lutz, Skirbekk, & Testa, 2006). 그런데 현재의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향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저하시키고(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04), 청년층의 기대소득을 하향시킨다. 많은 연구결과들이 현재 청년층의 미래전망이 회의적임을 지적하고 있다(Blossfeld et al., 2005). OECD 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오늘날 청년층의 소득은 실질액에서 십년 전 그들의 아버지의 소득보다 낮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세대 간 상대소득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이탈리아에서는 아버지 세대의 소득에 비하여 자녀 세대의 상대소득이 현격하게 낮아지고 있다(Lutz, Skirbekk, & Testa, 2006). 이러한 상황을 요약하면, 현재의 청년들은 원가족에서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성장과정에서의 소비수준이 높아지고 향후 기대하는 소비수준도 높아지지만, 현실적으로 기대되는 청년들의 소득수준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청년층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이상적으로 기대하는 자녀수가 많더라도 현실적인 제약조건 하에서는 무리하게 자녀수를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코호트 출산율은 저하될 것이며, 자녀를 출산하는 청년들이더라도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산시기를 연기하게 된다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저출산트랩'가설이다(Eom, 2009).

현재까지 국내 데이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상대소득'가설을 검증한 연구는 Ryu(2007)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 연구에서는 1975~2004년까지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와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토대로 20~24세 남성의 연간소득을 이들의 아버지 세대로 추정하는 40~49세 남성의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를 적용하여 '상대소득'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20~24세 남성 청년층의 상대소득이 클수록 출산율이 높아짐으로써 '상대소득'가설이 지지되었고, 다른 연령층보다 20~24세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의 출산율 변화를 설명하는데 '상대소득'가

설이 적합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저출산트랩'의 출산율 저하가설과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저출산트랩'가설을 검증함으로써 현재 또는 향후 추진되는 저출산정책과 청년고용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트랩'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 자료를 실증 분석하여 경제적 합리성의 측면에서 '저출산트랩'가설의 출산율 저하 및 출산지연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예외적인 기존의 연구(Ryu, 2007; Eom, 2009)도 청년층이 실제 소속한 원가족의 소득수준과 자녀수 등을 배제한 채 거시변수를 이용한 추정을 통하여 가설검증을 하거나, 청년층의 연령대별 상대소득에 따른 출산율에 초점을 둬으로써 '저출산트랩'가설이 제시한 기대소비-기대소득 격차는 간과하고, 출산지연효과는 검증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대 초반인 주축인 청년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원가족 환경과 함께 경제적 합리성이 향후 출산을 희망하는 자녀수와 첫 출산을 계획하는 연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서 '저출산트랩'가설의 출산율 저하 및 출산지연 효과를 검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2년 5~6월 중 서울시 소재 4년제 남녀공학 사립 대학교 13개교에 재학 중인 511명의 대학생을 설문조사하여 492부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응답지 중 부실 기재되었거나 기혼자의 자료를 제외한 412명의 미혼남녀 대학생 자료를 최종적으로 청년층의 응답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인 청년층 대학생 412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년층 대학생의 평균연령은 만 21.28세이며, 이들이 속한 원가족의 자녀수는 평균 2.12명, 소득수준은 월평균 439.61만원으로 중산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이들이 장래에 희망하는 자녀수는 평균 2.08명(남 2.24명, 여 1.94명)이며, 전체 사례의 90.5%인 373명의 학생들이 향후 자녀출산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래에 출산의향이 있는 청년층 대학생들이 계획하는 첫 자녀 출산연령은 평균 31.30세(남 32.12세, 여 30.48세)로 나타났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tudent Participants

N=412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tatistics	n(%)	M(SD)
sex	male		203(49.3)	
	female		209(50.7)	
grade	freshmen		100(24.3)	
	sophomores		101(24.5)	
	juniors		114(27.7)	
	seniors		97(23.5)	
major	humanities & social sciences		205(49.8)	
	natural sciences & engineering		145(35.2)	
	arts & physical education		62(15.0)	
age (years)				21.28(2.07) range: 18 - 30
number of children in parental home				2.12(.58) range: 1 - 5
monthly family income(10,000 Won) in parental home				439.61(199.18) range: 0 - 2,000
intention of childbirth	yes		373(90.5)	
	no		39( 9.5)	
desired number of children	total		2.08( .95)	range: 0 - 5
	male		2.24( .97)	t=3.22**
	female		1.94( .92)	
planned age of first child birth (years in Korean age) among students who have intention of childbirth	total		31.30(2.41)	range: 25 - 40
	male		32.12(2.61)	t=6.96***
	female		30.48(1.86)	

\*\* $p < .01$ , \*\*\* $p < .001$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청년층 대학생들의 성별과 연령 및 원가족의 자녀수와 월평균 가구 소득액 등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묻는 질문과 함께 이들이 전망하는 취업가능성 및 임금 전망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부문, 자영업·창업, 기타 등에서 자신이 취업할 수 있는 객관적 가능성을 %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년층 대학생의 기대소득 및 소비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인이 각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월평균 예상임금(기대소득)과 본인이 원하는 월평균 희망임금(기대소비)을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청년층 대학생의 기대소비수준은 취업가능성을 가장 높게 응답한 일자리에서 희망하는 임금으로, 그리고 기대소득수준은

취업가능성을 가장 높게 응답한 일자리에서 예상되는 임금으로 설정하였으며, 기대소비-기대소득 격차는 취업가능성이 가장 높은 일자리의 희망임금에서 예상임금을 감한 액수로 설정하였다.

## 3. 자료분석방법

<연구문제 1>의 분석을 위하여 청년층 대학생의 취업가능성 및 예상·희망임금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문제 2, 3, 4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학생의 성별과 연령을 통제하고, 원가족의 자녀수 및 소득수준, 대학생의 기대소비-기대소득 격차를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청년층 대학생의 기대소비수준이나 장래 희망자녀수 및 계획한 첫 자녀출산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으로 회귀분석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청년층 대학생의 취업가능성과 임금 전망

본 연구의 대상인 청년층 대학생들이 객관적으로 본 자신의 장래 취업가능성은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타부문 취업이 68.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소기업 취업이 64.51%, 대기업 취업 54.62%, 공공부문 취업 49.63%, 자영업 및 창업 가능성 45.4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층 대학생들이 자신의 취업가능성을 가장 높게 응답한 일자리에서 희망하는 임금(기대소비수준)은 평균 350.54만원(남 380.31만원, 여 321.63만원)이었으며, 취업가능성이 가장 높은 일자리에서 예상되는 임금(기대소득수준)은 평균 275.36만원(남 282.75만원, 여 268.18만원)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이들의 기대소비와 기대소득수준 간 격차는 평균 75.18만원(남 97.56만원, 여 53.45만원)으로 나타났다.

2. 원가족의 자녀수와 소득수준이 청년층 대학생의 기대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

청년층 대학생의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후, 이들이 속한 원가족의 자녀수와 소득수준이 기대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Model

1에서 성별과 연령을 투입한 결과, 청년층 대학생의 기대소비수준 변량을 2.2% 설명하였으며( $F=4.549, p<.05$ ), Model 2에서 원가족의 자녀수와 소득수준을 투입한 결과, 기대소비수준 변량의 4.1%를 설명하며 유의한 설명력의 증가를 보였다( $F=4.105, p<.05$ ). 청년층 대학생은 자신이 속한 가족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대소비수준이 높았으며( $\beta=.128, p<.01$ ),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beta=-.149, p<.01$ ), 연령이 어릴수록( $\beta=-.102, p<.05$ ), 기대소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가족의 자녀수는 청년층 대학생의 기대소비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저출산트랩의 출산을 저하 가설 검증

청년층의 원가족 환경과 이들의 기대소비-기대소득 격차가 향후 자녀출산율을 저하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Model 1에서 대학생의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후, Model 2에서 원가족의 자녀수와 소득수준을 투입하고, Model 3에서 청년층 대학생의 기대소비와 기대소득 간 격차를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성별과 연령을 투입한 결과, 청년층 대학생의 희망자녀수 변량을 3.2% 설명하였으며( $F=6.045, p<.01$ ), 다음으로 원가족의 자녀수와 소득수준을 투입한 결과, 희망자녀수 변량의 4.8% 설명하며 유의한 설명력의 증가를 보였고( $F=3.216, p<.05$ ), 끝으로 기대소비-기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Youths' Prospects of Future Employability and Salary

N=412

Variables		M(SD)		
future employability (%)	employability in big business	54.62(24.24)		
	employability in small & medium-sized business	64.51(23.97)		
	employability in public sector	49.63(25.22)		
	self-employment possibilities	45.46(31.08)		
	employability in others	68.75(28.55)		
future salary (10,000 Won)	total	350.54(271.13)		
	consumption aspirations: desired monthly salary in the most employable job (A)	male	380.31(326.32)	$t=2.19^*$
		female	321.63(200.35)	
	total	275.36(150.20)		
	expected income: expected monthly salary in the most employable job (B)	male	282.75(129.11)	$t=.98$
		female	268.18(168.17)	
	total	75.18(196.79)		
	gap between consumption aspirations & expected income (A-B)	male	97.56(256.89)	$t=2.26^*$
		female	53.45(107.11)	

\* $p < .05$

Table 3. Regression of Number of Children and Wealth in Parental Home on Youths' Consumption Aspirations N=412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youths' consumption aspirations			
	Model 1		Model 2	
	B(S.E)	$\beta$	B(S.E)	$\beta$
Constant	746.876(156.182)		629.834(164.615)	
sex <sup>1)</sup>	-72.117( 27.291)	-1.133**	-80.693( 27.260)	-1.149**
age	-13.517( 6.604)	-1.103*	-13.366( 6.558)	-1.102*
number of children in parental home			23.582( 22.881)	.050
monthly family income in parental home			.175( .066)	.128**
R <sup>2</sup>	.022		.041	
F for change in R <sup>2</sup>	4.549*		4.105*	

Note: 1) Sex: 0=male 1=female

\* $p < .05$ , \*\* $p < .01$  VIF=1.009-1.075

Table 4. Regression of Number of Children &amp; Wealth in Parental Home and Gap between Youths' Consumption Aspirations &amp; Expected Income on Desired Number of Children

N=412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youths' desired number of children					
	Model 1		Model 2		Model 3	
	B(S.E)	$\beta$	B(S.E)	$\beta$	B(S.E)	$\beta$
Constant	2.671(.425)		2.561(.448)		2.658(.449)	
sex <sup>1)</sup>	-250(.074)	-1.178**	-245(.074)	-1.174**	-267(.075)	-1.190***
age	.000(.018)	.001	.002(.018)	.005	-.001(.018)	-.004
number of children in parental home			.108(.062)	.089 <sup>+</sup>	.115(.062)	.094 <sup>+</sup>
monthly family income in parental home			.000(.000)	-.098 <sup>+</sup>	.000(.000)	-.088 <sup>+</sup>
gap between aspirations & expected income					.000(.000)	-.106*
R <sup>2</sup>	.032		.048		.059	
F for change in R <sup>2</sup>	6.045**		3.216*		4.227*	

Note: 1) Sex: 0=male 1=female

\* $p < .01$  \*\* $p < .05$ , \*\*\* $p < .001$  VIF=1.009-1.097

대소득 격차를 투입한 결과, 희망자녀수 변량의 5.9% 설명하며 역시 유의한 설명력의 증가를 보였다( $F=4.227$ ,  $p < .05$ ). 청년층 대학생이 기대하는 소비수준과 장래 예상되는 소득수준 간 격차가 클수록 향후 희망하는 자녀의 수는 줄어들며 ( $\beta = -.106$ ,  $p < .05$ ),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희망자녀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90$ ,  $p < .001$ ). 한편 원가족의 자녀수가 적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층 대학생의 희망자녀수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나, 유의도 수준은  $p < .10$ 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저출산트랩의 출산지연가설 검증

청년층의 원가족 환경과 이들의 기대소비-기대소득 격차가 향후 첫 자녀 출산을 지연시킨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출산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373명을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1단계에서 투입한 성별과 연령은 청년층 대학생의 첫 자녀 출산계획연령 변량의 14.1% 설명하였으며( $F=30.244$ ,  $p < .001$ ), 2단계에서 원가족의



Table 5. Regression of Number of Children & Wealth in Parental Home and Gap between Youths' Consumption Aspirations & Expected Income on Planned Age of First Child Birth N=373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youths' planned age of first child birth					
	Model 1		Model 2		Model 3	
	B(S.E)	$\beta$	B(S.E)	$\beta$	B(S.E)	$\beta$
Constant	29.386(1.377)		29.653(1.460)		29.559(1.470)	
sex <sup>1)</sup>	-1.442(.239)	-.300 ***	-1.428(.240)	-.297 ***	-1.407(.243)	-.293 ***
age	.192(.058)	.163 **	.191(.059)	.163 **	.194(.059)	.165 **
number of children in parental home			-.014(.200)	-.003	-.022(.200)	-.005
monthly family income in parental home			-.001(.001)	-.045	-.001(.001)	-.048
gap between aspirations & expected income					.000(.001)	.030
R <sup>2</sup>	.141		.143		.143	
F for change in R <sup>2</sup>	30.244***		.445		.360	

Note: 1) Sex: 0=male 1=female

\*\*p < .01, \*\*\*p < .001 VIF=1.007-1.094

자녀수와 소득수준을 투입하고, 3단계에서 청년층 대학생의 기대소비-기대소득 격차를 투입한 결과, 각각 설명력이 14.3%에 그쳐 유의미한 설명력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향후 출산의향이 있는 청년층 대학생들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beta = -.293, p < .001$ ), 그리고 연령이 많을수록( $\beta = .165, p < .01$ ) 첫 자녀 출산연령을 지연하는 경향이 있으며, 원가족의 환경이나 이들의 기대소비-기대소득 격차는 첫 자녀 출산을 지연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년층 대학생들이 예상하는 장래 취업가능성과 임금 전망을 살펴보고, 이들이 속한 원가족 환경과 함께 청년들의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저출산트랩' 가설의 출산을 저하 및 출산지연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얻은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 대학생들이 객관적으로 전망한 자신의 장래 취업가능성은 대기업 취업 54.62%, 중소기업 취업 64.51%, 공공부문 취업 49.63% 등으로 높지 않았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 대학·계열별 취업률' 조사결과, 4년제 대학 취업률이 56.2%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대상인 청년층 대학생들이 상당히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에서 자신의 취업을 전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이들의 희망임금(기대소비수준)은 월평균 350.54만원(연간 4,206.48만원), 예상임금(기대소득수준)은 월평균 275.36만원(연간 3,304.32만원)으로 기대소득수준이 기대소비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당히 어려운 격차를 나타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조사 결과, 2013년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이 대기업 3,695만원, 중소기업 2,331만원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청년층 대학생들의 임금 전망은 기대소비-기대소득 격차가 매우 큰 비현실적 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청년층 대학생이 속한 원가족 환경이 이들의 기대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원가족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대소비수준은 높게 나타난 반면, 원가족의 자녀수는 청년층 대학생의 기대소비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기의 라이프스타일 선호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원가족에서 경험한 생활수준이라는 Easterlin(1987)의 주장이나 '저출산트랩' 가설(Lutz, Skirbekk, & Testa, 2006)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가족에서 부모의 부를 과거보다 적은 수의 형제와 나누면서 소비자로서의 소비성향이 더욱 증가한다는 '저출산트랩' 가설(Lutz, Skirbekk, & Testa, 2006)은 예상과 달리 지지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생들의 원가족 자녀수가 평균 2.12명인 소자녀 가정으로 이들의 기대소비수준을 충분히 높일 정도로 원가족 자녀수의 편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셋째, 청년층 대학생의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이들의 원가족 환경 및 기대소비-기대소득 격차가 향후 희망자녀수를 감소시키거나 첫 출산시기를 지연시킬 것인지 검증한 결과, 청년층 대학생이 기대하는 소비수준과 장래 예상되는 소득수준 간 격차가 클수록 향후 희망하는 자녀수는 줄어들지만, 첫 자녀 출산계획시기를 지연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저출산트랩' 가설(Lutz, Skir-

bekk, & Testa, 2006)의 출산을 저하효과는 지지되었으나, 출산지연효과는 지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청년일자리나 실업문제가 향후 인구감소와 함께 저출산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저출산트랩'의 위험성을 예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이러한 '저출산트랩'을 피해가려면 신혼부부 및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초점을 둔 기존의 저출산 정책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인 청년고용정책 등 생애주기 상 보다 이른 시기의 현안들이 저출산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임금조건이 열악하여 결혼이나 자녀출산 등 새로운 가족형성을 꺼리는 비정규직, 또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층 미혼자들에게 결혼장려금 지급, 자녀출산 시 주택자금우선대출 등 체감효과가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임금에 대한 청년층의 비현실적 기대를 낮추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현실적인 일자리를 조기 탐색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학교교육에 진로탐색 교과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2013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우리 사회의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베이비부머 부모세대와 에코부머 청년층 자녀세대간에 '제로섬게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임금피크제 등 고령근로자의 임금조정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공공부문이나 민간기업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에서 청년들을 신규 채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저출산트랩'가설 검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4년제 남녀공학 사립 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목적적 표집을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청년층으로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요하며, 세대별 코호트에 근거한 '저출산트랩'가설을 청년층 대학생 개인의 응답을 통하여 검증하였기 때문에 생태학적 오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청년층 대학생의 향후 희망자녀수와 출산시기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제 이루어질 출산행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장래의 취업가능성과 임금에 대한 전망을 질문함으로써 실제로 이들이 응답한 일자리에 취업을 하고, 예상했던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결과, 미혼자의 장래 출산결정에 영향을 주는 자녀가치관은 2005년과 2009년 사이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경로분석 결과, 이처럼 변화된 미혼자의 자녀가치관을 매개로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요인들이 출산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0). 따라서 청년층의 출산의향 변화추이와 이들의 장래 출산결정에 이르는 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추후연구에서는 대표성 있는 청년층의 표집과 아울러 이들의 취업을 전후한 시점을 포괄하여 종단적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저출산트랩'가설의 검증을 보다 명확히 하고, 청년고용 및 저출산 관련정책에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미시적 데이터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 청년층의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저출산트랩'가설의 검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REFERENCES

- 동아일보(2012). **대학생 66% “정년 연장하면 신규채용 줄어 곤란”**: 기대연봉은 3329만원... 실제보다 286만원 격차. 2012. 5. 8.
- 이근태 · 고가영(2012). **대한민국 인적자본이 흔들리고 있다**. *LG Business Insight*. 2012. 8. 22.
- 한국경제(2012). **에코 세대(27~33세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 사회진입 적극지원율**. 2012. 6. 26.
- Blossfeld, H. P., Klijzing, E., Mills, M., & Kurz, K.(eds.) (2005). *Globalization, uncertainty and youth in society*. London/New York: Routledge.
- Easterlin, R. A.(1987). *Birth and fortune*(2nd ed.). N.Y.: Basic Books.
- Eom, D.(2009). Does Korea fall into the low fertility trap?: A test of the low fertility trap hypothesi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2(2), 141-159.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2004). National Team Reports. Babson Park, MA: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Available from: <http://www.gem-consortium.org>. Accessed July 5, 2007.
- Hyundai Research Institute(2011). Wage levels of young workers are deteriorating. *HRI Weekly Economic Review*, 11-26.
- Kim, N., Lee, J., Kim, E., & Kim, G.(2010). *A study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values and child-birth*. Seoul: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Lutz, W.(2007). The future of human reproduction: Will

- birth rates recover continue to fall? *Ageing Horizons*, 7, 15-21.
- Lutz, W. Skirbekk, V., & Testa, M. R.(2006). The low fertility trap hypothesis: Forces that may lead to further postponement and fewer births in Europe. In Philipov, D., Liefbroer, A. C., & Billari, F. C. (Guest des.)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2006*, Special Issue on "Postponement of Childbearing in Europe". Vienna: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pp. 167-192.
- MacDonald, M. M. & Rindfuss, R. R.(1978). Relative economic status and fertility: Evidence from a cross-section. In Simon, J.(ed.), *Research in population economics*. Vol. 1. Greenwich, CT: JAI Press.
- Macunovich, D.(1998). Fertility and the Easterlin hypothesis: An assessment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1, 53-111.
- Macunovich, D.(2002). Economic theories of fertility. In K. S. Moe(ed.), *Women, family and work*(pp. 159-179). Blackwell Publishers.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 2012 Advancement rate of high school graduates.
- Oh, H.(2008).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mployment prospects, life aims, and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4(4), 19-37.
- Ryu, D.(2007). Fertility decline and female labor supply in Korea. *Korea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2(1), 39-74.
- Stutzer, A.(2004). The role of income aspirations in individual happines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54(1), 89-109.
-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2008). Major issues in and policy responses to Korea's low fertility and aging population.
- Thornton, A.(1979). Fertility and income, consumption, aspirations and child quality standards. *Demography*, 16(2), 157-175.
- Westoff, C. F. & Ryder, N.(1977). *The contraceptive revolu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접수일 : 2013년 03월 11일
- 심사일 : 2013년 04월 04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06월 14일